

만 18세 청소년의 제21대 총선 선거참여 실태조사

공동연구책임자: 최연혁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소장·김나리 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 한국청소년재단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 최연혁 소장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본 연구소는 한국과 북유럽 간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문제해결의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스웨덴 학술연구재단(The Swedish Research Council)의 정식인가를 받아 교육, 연구, 출판 및 국제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첫 시행된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참여 현황 및 요인, 정치 및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시민의식과 불평등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20년 7월 한국청소년재단과 공동으로 『만 18세 청소년의 제21대 총선 선거참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주권자로서의 청소년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1975년도부터 18세 선거권이 도입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거 사전교육을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된 학교투표제도(school election)는 총선 1주일 전 시행되어 총선과 동일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예비유권자의 선거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간의 지난한 논의 끝에 2019년 선거연령 인하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존재하였으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선거 연령 인하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에 대한 논의가 관련법 개정 전, 선거 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선거 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및 분석되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민주시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정계, 학계,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말

헌정사상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총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사회에 기념비적인 일로 기억됩니다. 긴 시간동안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와 인권신장이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임을 확신하고 헌신해온 청소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2020년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청소년 사회의식조사”, “18세 유권자토론회”, “청소년모의국회”, “코로나시대,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의 연속 개최해왔으며, 주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각계에 청소년의 요구와 지향을 대변해 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만 18세 청소년의 제21대 총선 참여 실태조사”는 그 활동의 연장선상이면서 가장 뜻 깊은 연구 활동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만 18세 유권자들의 요구와 바람이 정리되고 이러한 연구내용이 청소년 유권자 교육과 지원을 위한 토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최연혁 소장님과 김나리 연구원님의 열정과 수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대표

I. 서론

2019년 12월,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2019985)』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는 1980년 제8차 개헌을 앞두고 논의되기 시작한바 이들의 선거권 획득은 장장 40년 만의 결실이다. 제21대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수는 54만8986명으로 전체 유권자수 4399만4247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선거 연령 인하 논의가 있었음에도 OECD 국가 중 한국만 만 18세 공직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계 일각에서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크게 존재했던 데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음에 따른 타인의 영향력, 선거운동·정치활동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화와 이념 논쟁장으로의 변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원의 정치활동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근거로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현재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참정권 확대의 세계적 추세, 교육수준의 확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높은 민주시민 의식 등의 근거로 일부 정치권, 청소년 시민단체 등에서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긍정적 의견

을 표명해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은 2020년 제21대 총선뿐만 아니라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도 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 몇몇 과제를 던져준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요구와 같이 청소년 유권자들이 매 선거에서 정치적 소양에 기반해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정치권은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청소년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 단계인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 즉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 정치에 대한 인식, 시민의식 및 불평등 인식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 주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하여 제도 및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설문조사업체 엠브레인에 문의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당시 만 18세였던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분석결과와 함의점을 담았다.

연구결과, 만 18세 신생유권자들은 민주시민역량이 매우 높으며, 정치참여에 대한 열망과 실천력이 강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wish)와 희망(hope)을 갖고 있는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평등, 공정의 가치에 대한 냉철한 비판능력(critical ability)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 참여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 정치인, 국회를 극도로 신뢰하지 않는 비판적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논의와 제도 마련에 밑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 참여 및 인식 실태 분석

1.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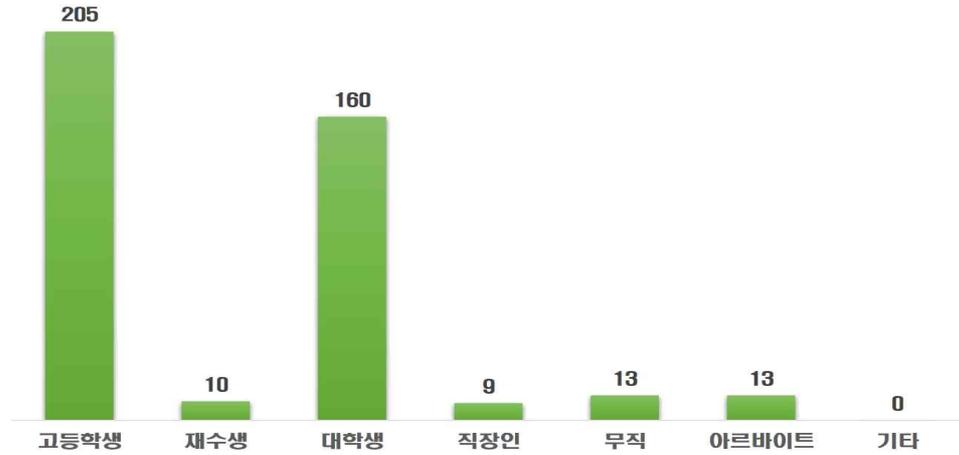
1) 만 18세 청소년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성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일 당시 만 18세였던 2001년 4월 17일 ~ 2002년 4월 16일 출생자 총 410명이며, 남자 174명(42.4%), 여자 236명(57.6%)이다.

(2)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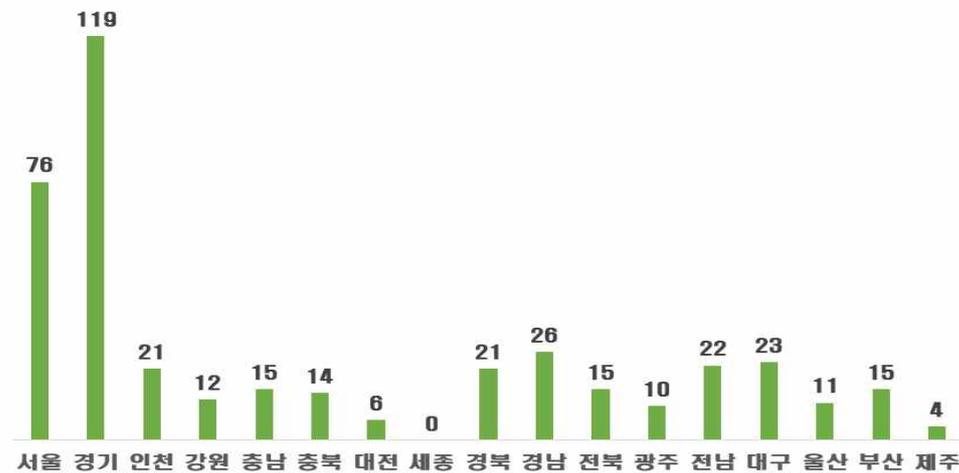
총선일 기준 만 18세 청소년은 세는나이(한국식 나이) 19세와 20세로 고등학생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직장인, 무직 등으로 소속이 다양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고등학생 205명(50%), 재수생 10명(2.4%), 대학생 160명(39%), 직장인 9명(2.2%), 무직 13명(3.2%), 아르바이트 13명(3.2%)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조사대상자 소속

(3) 거주지역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119명(2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며, 서울 76명(18.5%), 경상남도 26명(6.3%), 대구광역시 23명(5.6%), 전라남도 22명(5.4%), 인천광역시 21명(5.1%),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각각 15명(3.7%)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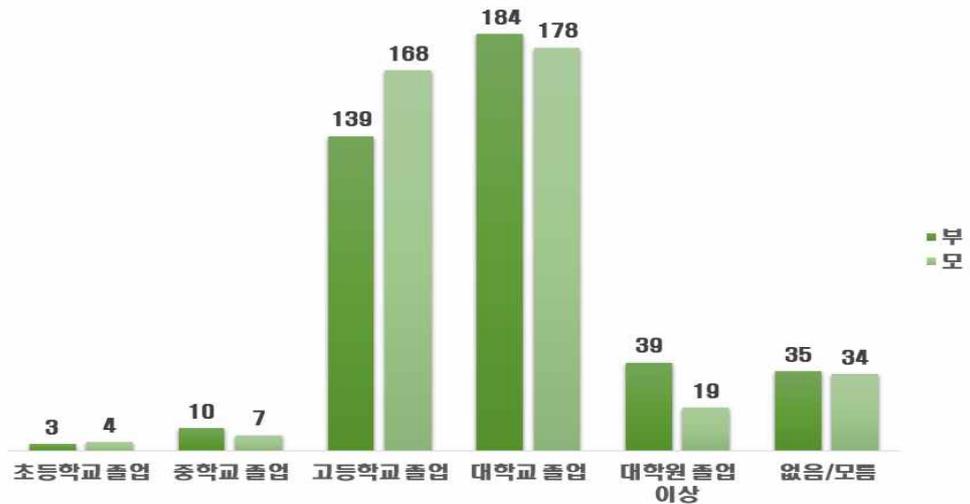


[그림 2] 조사대상자 거주지역

2) 부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1) 최종학력

조사 대상자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부(父)와 모(母)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184명(44.9%), 고등학교 졸업 139명(33.9%), 대학원 졸업 이상 39명(9.5%) 순이며, 모의 학력 또한 부와 유사하게 대학교 졸업 178명(43.4%), 고등학교 졸업 168명(41.0%), 없음/모름 34명(8.3%)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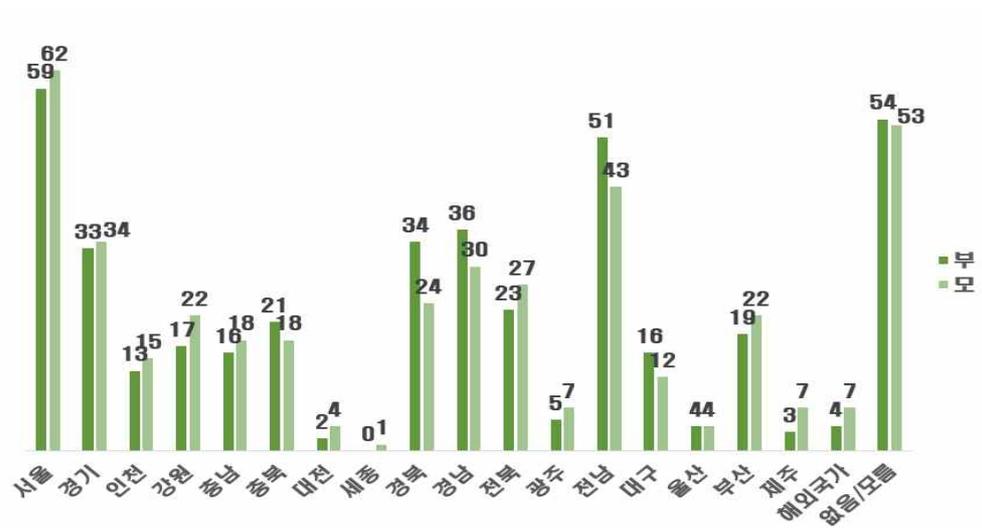
[그림 3] 조사대상자 부모 학력

(2) 출생지역

부의 출생지역은 서울특별시 59명(14.4%), 없음/모름 54명(13.2%), 전라남도 51명(12.4%) 순이며, 경상남도 36명(8.8%),

경상북도 34명(8.3%), 경기도 33명(8.0%) 등이 잇따르고 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각 21명(5.1%), 23명(5.6%)로 5% 대이며, 강원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는 4%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모의 출생지역은 서울특별시가 62명(15.1%)으로 가장 높으며, 없음/모름 53명(12.9%), 전라남도 43명(10.5%), 경기도 34명(8.3%), 경상남도 30명(7.3%), 전라북도 27명(6.6%)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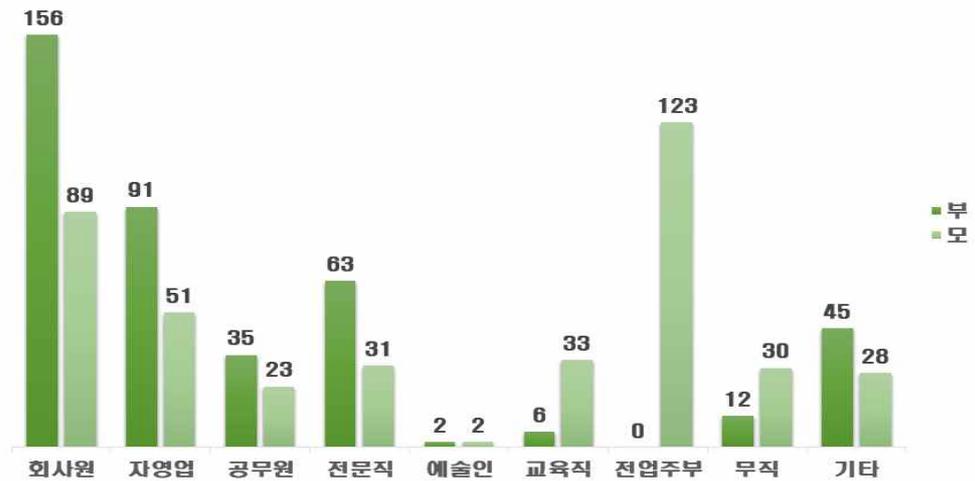


[그림 4] 조사대상자 부모 지역

(3) 직업

부의 직업은 회사원이 156명으로 38%에 달하며, 자영업 91명(22.2%), 전문직 63명(15.4%), 공무원 35명(8.5%)을 보이고 있다. 예술인, 교육직, 무직 등은 3%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23명(30%)으로 가장 높으며, 회사원 89명(21.7%), 자영업 51명(21.4%), 교육직 33명(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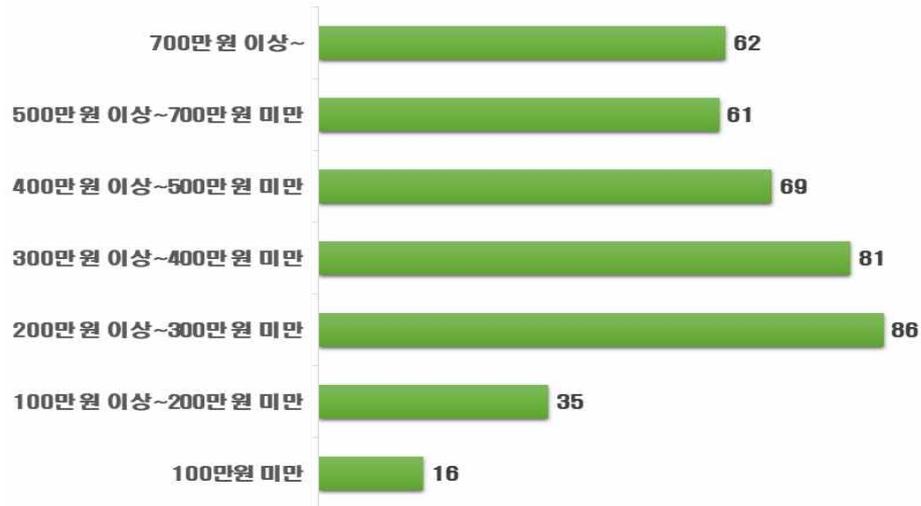
전문직 31명(7.6%), 무직 30명(7.3%), 공무원 23명(5.6%) 등의 순이다.



[그림 5] 조사대상자 부모 직업

(4) 월수입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86명(21.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81명(19.8%),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69명(16.8%), 700만 원 이상 62명(15.1%), 5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61명(14.9%) 등 4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을 버는 부모가 66%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 부모의 월수입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 35명(8.5%), 100만원 미만은 16명(3.9%)이다.



[그림 6] 조사대상자 부모 월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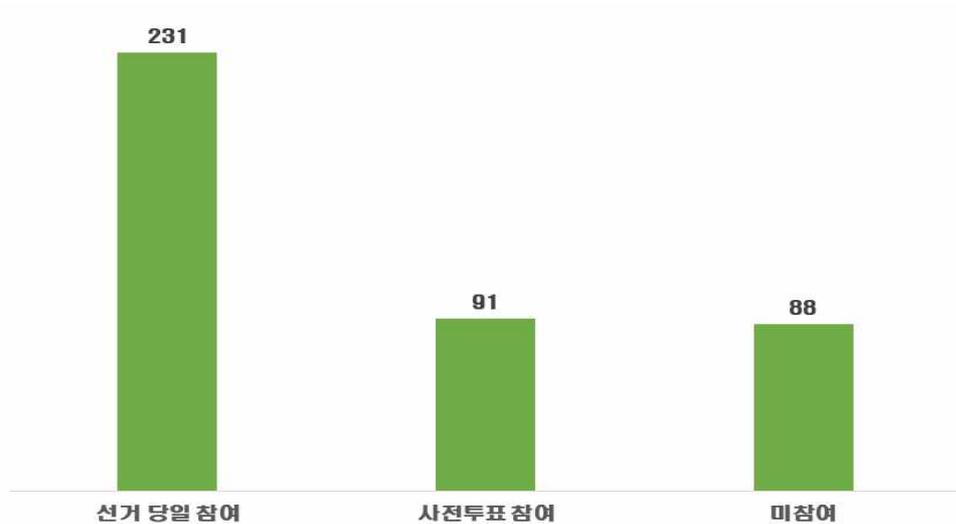
2.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참여

1) 총선 투표참여 현황

선거에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의 비율 78.5%
고등학생 선거 당일 참여 64.9%

본 조사에 참여한 410명의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현황을 살펴보면 선거 당일 참여 231명(56.3%), 사전 투표 참여 91명(22.2%)로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322명(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총선 투표율인 66%를 상회하는 수치로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된 연구의 특성상 적극적 투표참여 청소년의 조사 참여율이 높은 결과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실제 투표율은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88명(21.5%)에 달한다.



[그림 7] 조사대상자 투표현황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 참여율이 각 58.9%, 25.4%로 남성 참여율 각 52.9%, 17.8%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선거 당일 참여가 64.9%로 고등학생 외 대학생, 직장인 등의 참여율 47.8%보다 높게 나타났다.

(1) 총선 참여 이유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34.4%

총선 투표 참여 배경을 살펴보면 141명(34.4%)의 만 18세 청소년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들었으며, 생애 첫 투표여서가 79명(19.3%)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밖에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45명(11%)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서

가 31명(7.6%)을 차지했다. 반면 지지하는 후보와 공약이 있어서를 응답한 청소년은 각 2%, 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명의 청소년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투표를 했다는 응답은 0명이였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각 30.9%, 51.8%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한편 부모의 권유에 의해 선거에 참여한 비율은 남성 20.3%, 여성 10.1%로 남성이, 고등학생이 18.4%로 직장인 등 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조사대상자 투표 참여 이유

(2) 총선 미참여 이유

관심이 없어서 30.7% &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23.9%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27명(30.7%)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 선거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가 각각 21명,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에 대한 지식 및 정보가 없어서, 선거에 참여해도 우리사회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는 각각 8명, 10명이 응답하였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은 관심이 없어서(39.7%), 선거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23.5%),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17.6%)를 꼽았으며, 여성은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32.4%), 관심이 없어서(18.9%), 선거일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16.2%) 순으로 선택했다.



[그림 9] 조사대상자 투표 미참여 이유

소속별로는 모든 만 18세 청소년이 관심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서를 그 다음으로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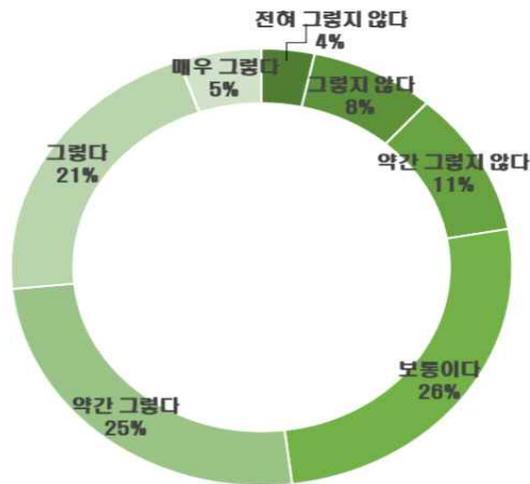
(3) 선거 관련 정보 습득

52% 선거 전 정보 및 지식 얻어, 인터넷 통해 44%

조사 대상자의 52%는 총선 전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정당, 공약 등의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선 정보 및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얻었다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 104명(25.4%), 그렇다 87명(21.2%), 매우 그렇다 22명(5.4%)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106명(25.9%)에 달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는 각 14명(3.4%), 33명(8.0%), 44명(10.7%)으로 약 22%의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 관련 정보는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4%에 달하는 182명이 인터넷에서 총선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얻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족은 79명(19.3%)으로 부모님의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에 의한 정보 습득을 살펴보면 신문 32명(7.8%), TV 65명(15.9%)으로 TV가 높았다. 한편 선생님 6명(1.5%), 학교 내 활동 3명(0.7%) 등으로 학교에서의 선거 정보 획득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조사대상자 선거 사전지식

2) 선거 외 정치참여 현황

73.7%의 만 18세 청소년 국민청원 참여 경험

선거 외 정치참여는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한 활동을 모두 선택한 본 조사결과, 국민청원에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이 302명(73.7%)에 달해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이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상에 댓글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청소년은 79명이었으며, 온라인상에 게시글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청소년은 70명으로 드러났다.



[그림 11] 조사대상자 정치참여

반면 직접적인 활동들은 집회·시위 참여 64명, 정치인 만남 36명, 선관위 보조활동 16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정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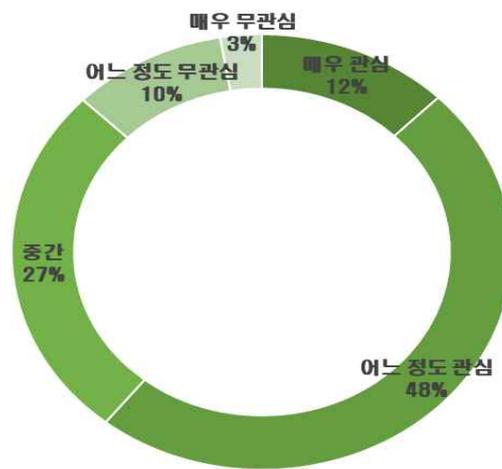
1) 정치에 대한 관심

약 87%의 청소년이 정치에 중간 이상의 관심, 무관심 13%

만 18세 청소년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관심은 꽤 높은 수준이다. 정치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청소년이 51명(12.4%),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청소년이 198명(48.3%)으로 총 약 60%에 달하며, 관심이 중간이라는 응답자 109명(26.6%)을 더하면 약

87%의 청소년이 정치에 중간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느 정도 무관심 41명(10%), 매우 무관심 11명(2.7%)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청소년은 약 13%에 불과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64%가 관심(어느 정도 관심+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성은 약 56%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속별로는 고등학생이 약 65%, 대학생, 직장인 등이 약 57%로 고등학생이 정치에 더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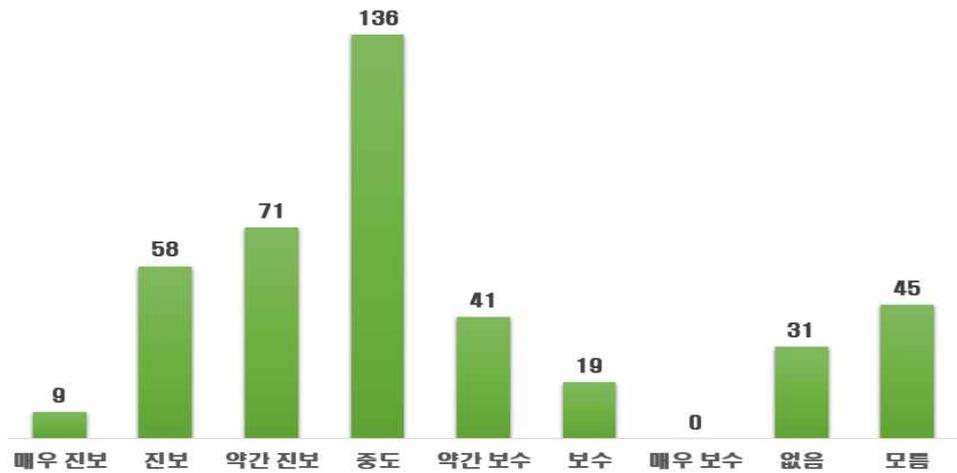
[그림 12] 조사대상자 정치 관심

2) 정치 성향

진보 33.6%, 중도 33.2%, 보수 14.6%, 없음 7.6%, 모름 11%
지지정당 없음 40.2%, 더불어민주당 26.8%, 모름 13.2%
정의당 6.8%, 미래통합당 6.1%

조사대상자의 정치성향은 중도가 136명(3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신의 정치성향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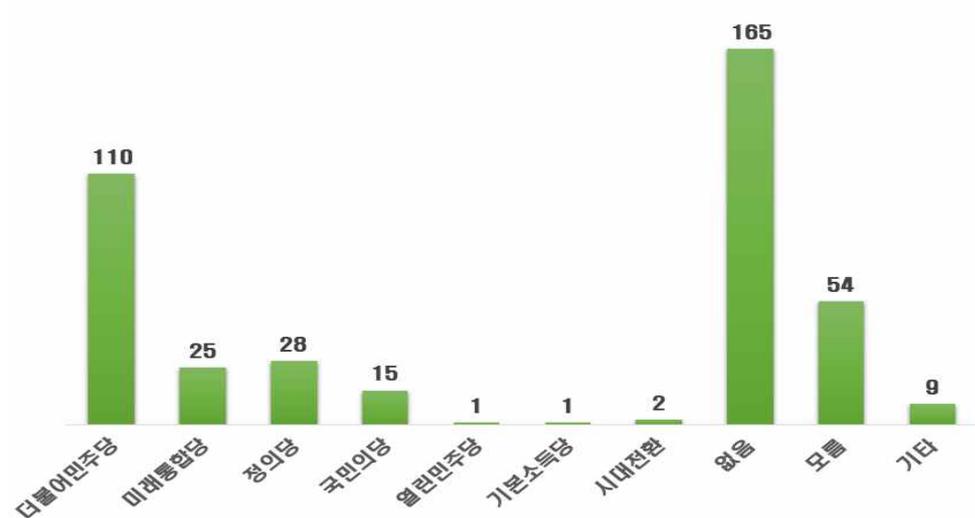
청소년이 각각 31명(7.6%), 45명(11%)으로 18.6%가 뚜렷한 정치성향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살펴보면, 약간진보가 71명(17.3%)으로 가장 높으며, 약간진보 58명(14.1%), 매우 진보 9명(2.2%)으로 진보성향의 청소년이 33.6%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약간보수 41명(10%), 보수 19명(4.6%)이며 매우보수 0명으로 보수성향 청소년은 14.6%에 불과하다.



[그림 13] 조사대상자 정치 성향

이 같은 정치성향은 지지정당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없음 165명(40.2%), 모름 54명(13.2%)으로 무당층이 약 53%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10명(26.8%), 정의당 28명(6.8%), 미래통합당 25명(6.1%), 국민의당 15명(3.7%)을 보이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1~2명 수준이다. 반면 기타 응답에서 여성의당을 기록한

청소년이 8명에 달해 의석수가 있는 일부 소수당보다 높은 응답수준을 보였다.



[그림 14] 조사자 관심 정당

4.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정치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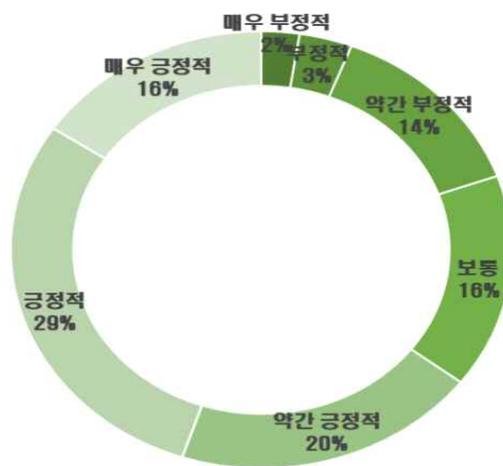
1)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

64.7% 청소년 정치 참여 긍정, 부정 19%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이 약 6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약간 긍정적 81명(19.8%), 긍정적 120명(29.3%), 매우 긍정적 64명(15.6%)이 응답해 긍정 응답이 64.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65명(15.9%)이며, 매우 부정적 10명

(2.4%), 부정적 14명(3.4%), 약간 부정적 56명(13.7%)으로 부정 응답은 약 19%를 기록하였다.

남성은 약 59%, 여성은 약 6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약 71%, 직장인 등은 58.6%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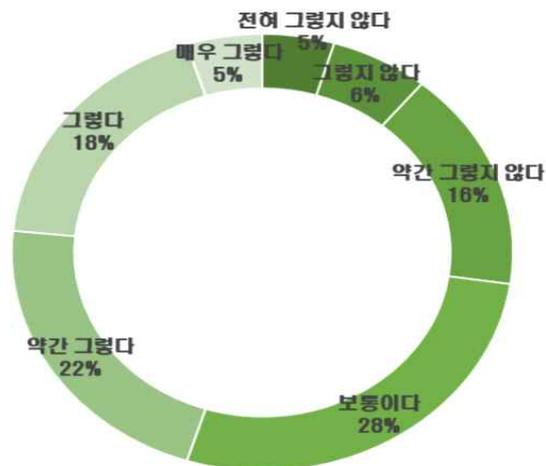
[그림 15] 조사대상자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

정치에 참여할만한 시민 역량과 관련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 그렇다 75명(18.3%), 그렇다 122명(29.8%), 매우 그렇다 70명(17.1%)으로 65.2%이며, 89명(21.7%)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5%), 그렇지 않다 15명(3.7%), 약간 그렇지 않다는 33명(8.0%)으로 약 13%에 머물렀다.

2)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 높은 청소년 약 45%, 보통이다 포함 72.7%

만 18세 청소년은 대체로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약간 그렇다 89명(21.7%), 그렇다 76명(18.5%), 매우 그렇다 20명(4.9%)이 약 45%이며, 보통이다 113명(27.6%)을 포함하면 72.7%에 달한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4.6%), 그렇지 않다 26명(6.3%), 약간 그렇지 않다 67명(16.3%)으로 27.2%의 청소년이 낮은 정치효능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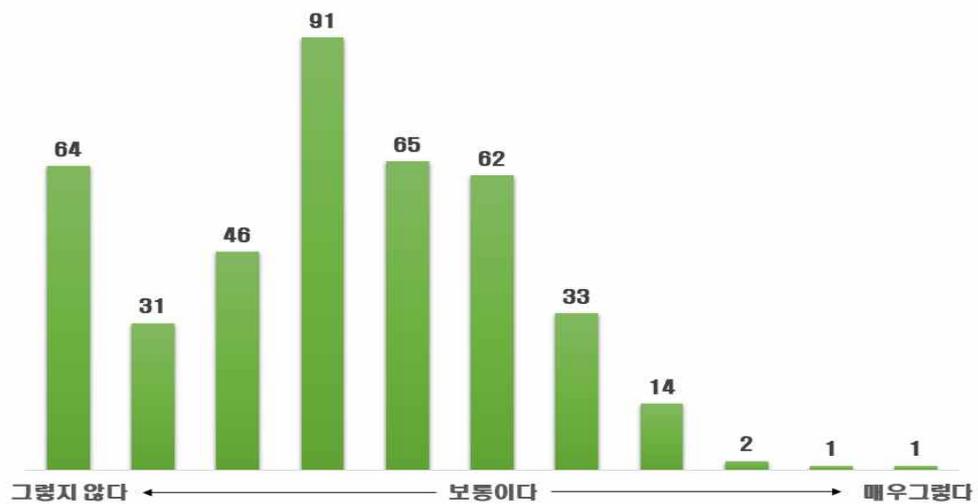
[그림 17] 조사대상자 정치효능감

5. 정치 신뢰

1) 정치인 신뢰

72.5% 만 18세 청소년 정치인 신뢰하지 않아

11(0~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5점 척도(보통이다)를 기준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0~4를 택한 청소년이 297명(72.5%)에 달했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만 18세 유권자는 62명(15.1%)이었으며, 신뢰한다고 응답한 6~10 영역의 응답자는 51명(12.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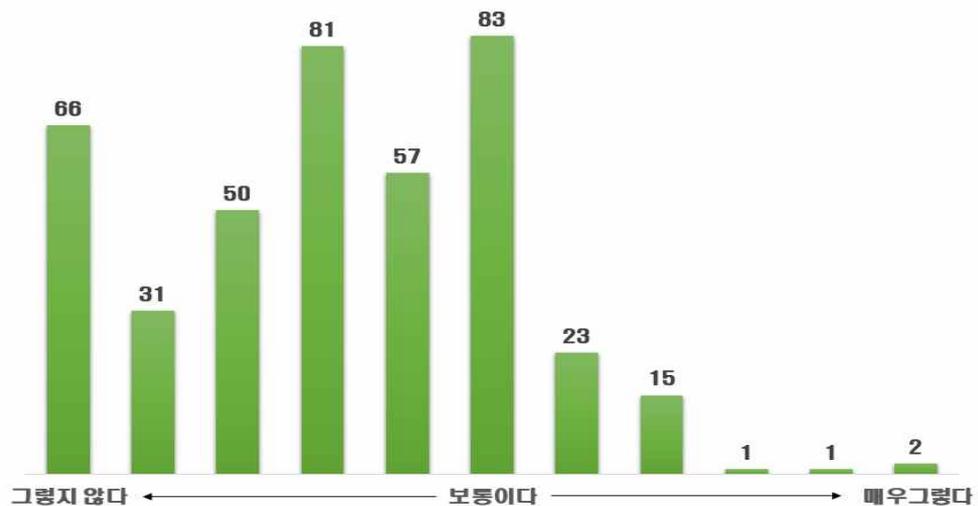


[그림 18] 조사대상자 정치인 신뢰

2) 정당 신뢰

69.6% 정당 신뢰하지 않아

정당 신뢰도 마찬가지로 11(0~10)척도로 분석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영역인 0~4를 선택한 청소년 유권자는 285명(69.6%)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3명(20.2%)이었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영역인 6~10영역을 선택한 만 18세 유권자는 42명(10.2%)에 불과해 정당에 대한 신뢰가 정치인에 대한 신뢰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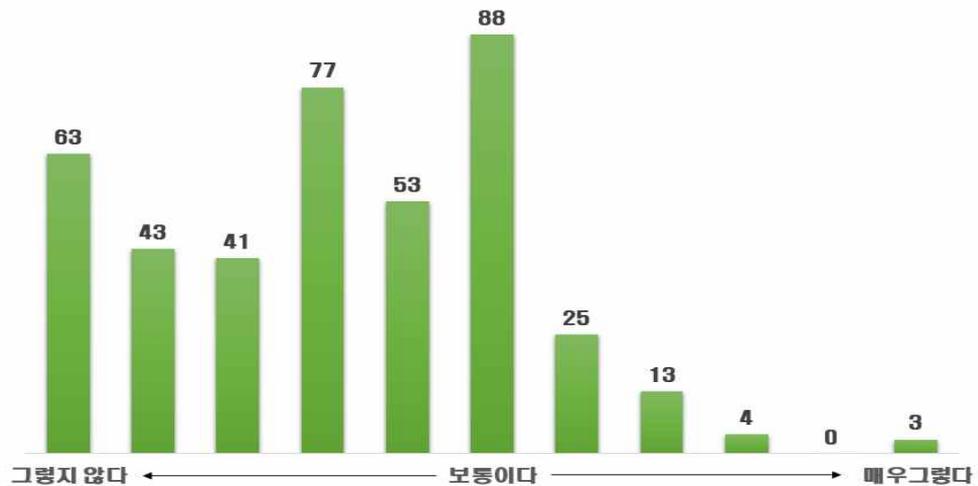


[그림 19] 조사대상자 정당 신뢰

3) 국회 신뢰

67.6% 청소년 유권자 국회 신뢰 떨어져

국회 신뢰 또한 정치인과 정당 신뢰와 같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회 신뢰 문항 11(0~10)척도 중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영역인 0~4를 응답한 청소년 유권자가 277명(67.6%)에 달하며, 반대 영역을 택한 선거권자는 45명(11%)에 이른다. 보통이라는 88명(21.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0] 조사대상자 국회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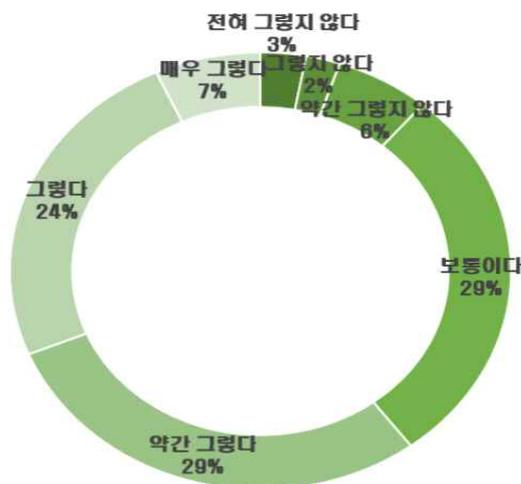
Ⅲ. 만 18세 청소년의 사회 인식 분석

1. 시민의식

1) 참여 및 책임

약 60% 참여와 관련하여 높은 시민의식 보여

적극적 참여 정도와 참여에 따른 책임을 묻는 문항에 대해 약간 그렇다 119명(29.0%), 그렇다 100명(24.4%), 매우 그렇다 28명(6.8%)이 응답하여 약 60%의 청소년들이 참여와 관련하여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보통이다 117명(28.5%),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2.9%), 그렇지 않다 9명(2.2%), 약간 그렇지 않다 25명(6.1%)으로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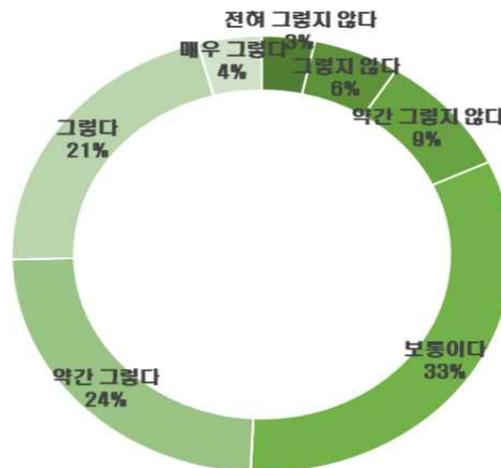


[그림 21] 조사대상자 참여 및 책임

2) 연대의식

연대의식 긍정 응답 49.2%

공동체 의식, 유대감, 소속감 등의 연대의식과 관련해서는 보통이다가 134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그렇다 98명(23.9%), 그렇다 87명(21.2%), 매우 그렇다 17명(4.1%)으로 긍정 응답이 49.2%로,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3.4%), 그렇지 않다 23명(5.6%), 약간 그렇지 않다 37명(9.0%) 등 부정 응답의 1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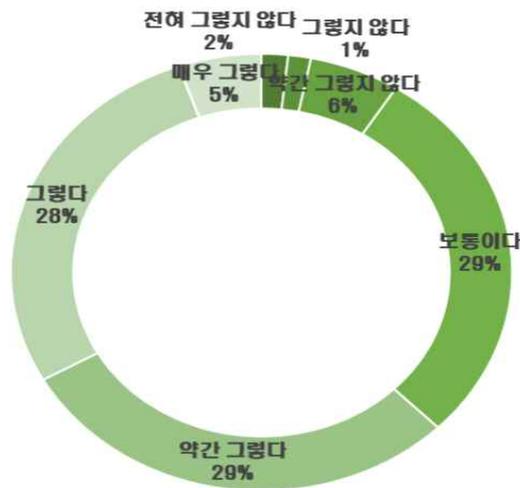


[그림 22] 조사대상자 연대의식

3) 비판 및 대안제시

62.5% 비판하되 대안 제시하는 편

잘못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20명 (29.3%)의 만 18세 청소년이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그렇다 114명(27.8%), 매우 그렇다 22명(5.4%), 보통이다 117명(28.5%),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1.7%), 그렇지 않다 6명(1.5%), 약간 그렇지 않다 24명(5.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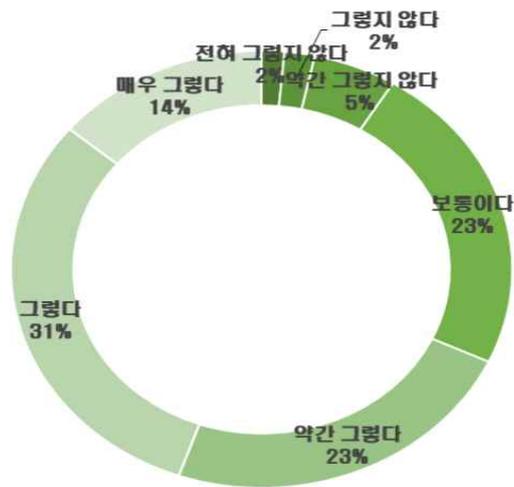


[그림 23] 조사대상자 비판 및 대안제시

4) 법 준수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법을 지킨다 68%

법 준수와 관련해서는 68%의 만 18세 유권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되어도 법을 지킨다는 긍정 응답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약간 그렇다 96명(23.4%), 그렇다 126명(30.7%), 매우 그렇다 57명(13.9%)에 해당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5%), 그렇지 않다 8명(2.0%), 약간 그렇지 않다 22명(5.4%)로 부정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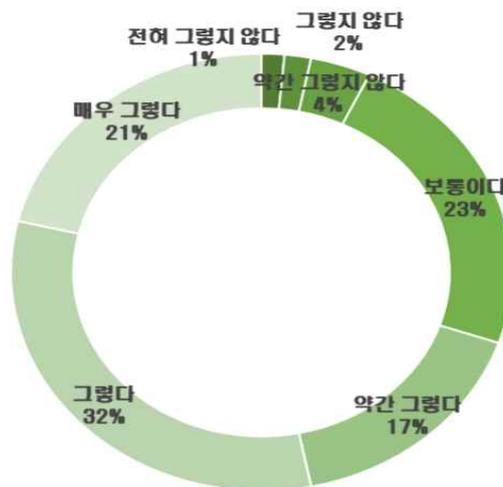


[그림 24] 조사대상자 법준수

5) 관용 및 포용

69.8% 사회적 배경 및 문화가 다른 사람 포용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 관점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및 포용에 대한 문항에서는 약간 그렇다 68명(16.6%), 그렇다 131명(32.0%), 매우 그렇다 87명(21.2%) 등으로 69.8%의 청소년 유권자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95명(23.2%)이었으며,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5%), 그렇지 않다 7명(1.7%), 약간 그렇지 않다 16명(3.9%) 등의 부정 응답은 7.1%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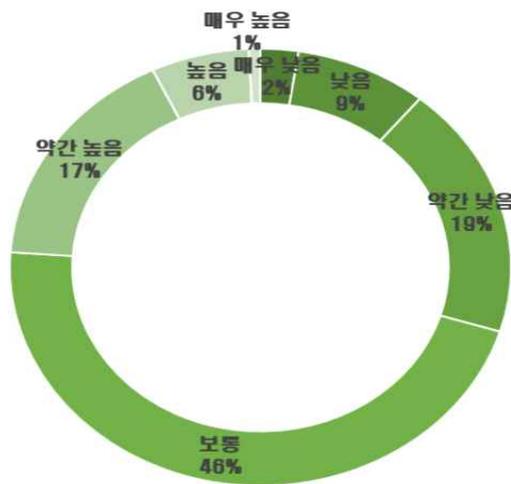
[그림 25] 조사대상자 관용 및 포용

2. 불평등인식

1) 경제적 지위

가족의 경제적 지위 보통 46.3%, 낮음 29.7%, 높음 23.8%

가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보통이 190명 (4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이라고 응답한 수는 각각 10명(2.4%), 35명(8.5%), 77명(18.8%)으로 29.7%를 차지했다. 높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약간 높음 69명 (16.8%), 높음 26명(6.3%), 매우 높음 3명(0.7%) 등으로 23.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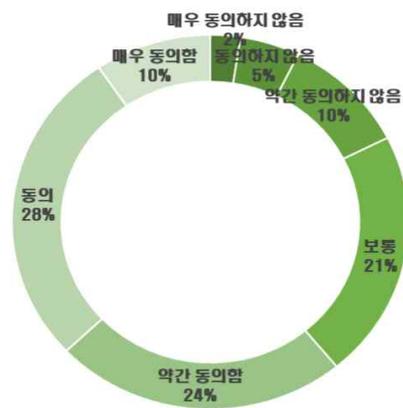
[그림 26] 조사대상자 경제적 지위

2)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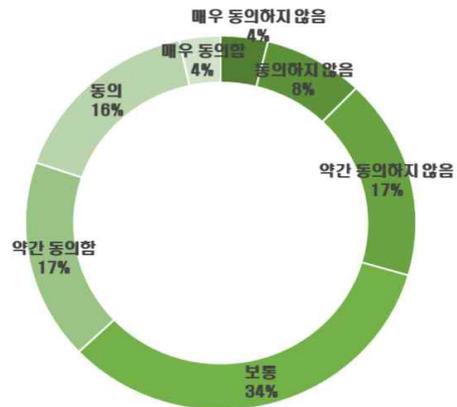
(1)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동의 61%, 소극적 자유 보통 33.4%

자유 문항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관련 61%가 동의 영역에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약간 동의한다 98명(23.9%), 동의한다 113명(27.6%), 매우 동의한다 39명(9.5%)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은 88명(21.5%)이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0명(2.4%), 동의하지 않는다 20명(4.9%),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42명(10.2%) 등이다.



[그림 27] 조사대상자 적극적 자유



[그림 28] 조사대상자 소극적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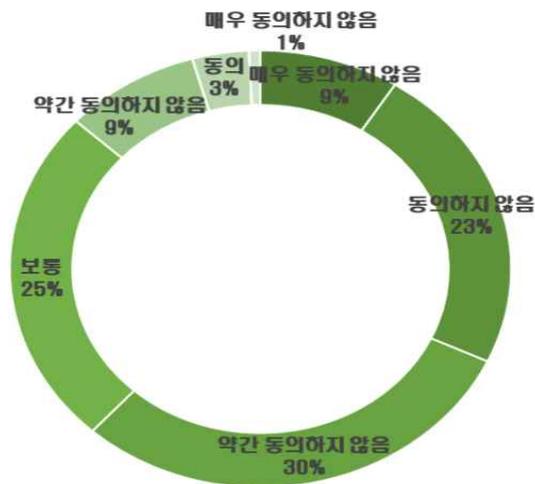
(2) 소극적 자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37명(33.4%)으로 가장 많았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등 동의 영역은 37%, 비동의 영역은 29.5%로 동의 영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평등

만 18세 청소년의 13.2%만이 우리사회 평등

우리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는 청소년은 13.2%로 약간 동의한다 36명(8.8%), 동의한다 15명(3.7%), 매우 동의한다 3명(0.7%)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영역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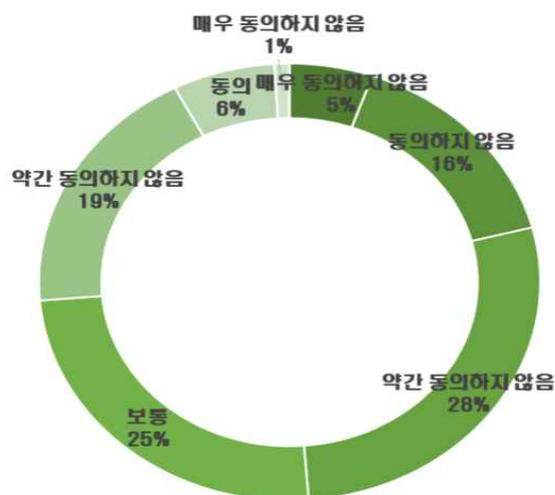
[그림 29] 조사대상자 평등

61.7%의 청소년이 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7명(9.0%), 동의하지 않는다 94명(22.9%),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122명(29.8%)이다. 보통은 103명(25.1%)으로 나타났다.

4) 가치박탈

48.8% 노력한 만큼 결과 얻을 수 없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치박탈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2명(5.4%), 동의하지 않는다 64명(15.6%),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114명(27.8%)이 응답하여 부정 영역에서 48.8%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약간 동의한다 77명(18.8%), 동의한다 27명(6.6%), 매우 동의한다 4명(1.0%), 보통 102명(24.9%) 등이 긍정 영역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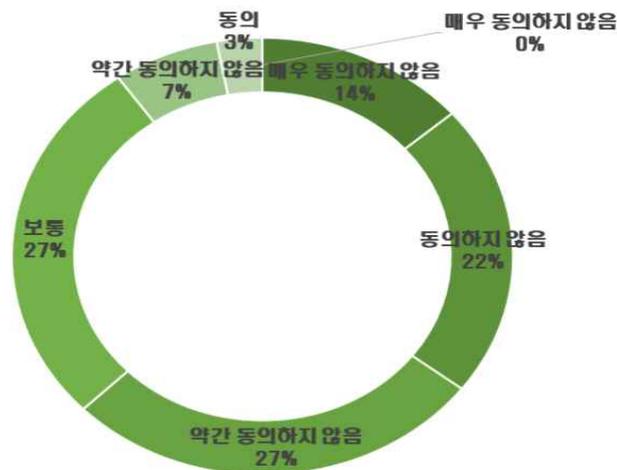


[그림 30] 조사대상자 가치박탈

5) 공정

62.7% 우리사회 공정하지 않아

우리사회의 공정함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113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112명(27.3%), 동의하지 않는다 89명(21.7%),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6명(13.7%)이 그 다음을 이었다. 즉,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약간 동의한다에 28명(6.8%), 동의한다에 12명(2.9%)이 대답하였으나, 매우 동의한다는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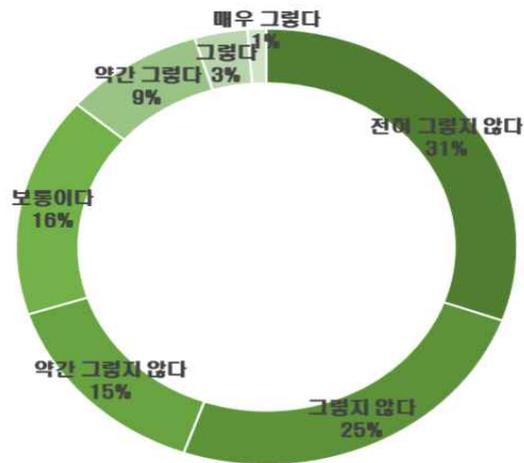


[그림 31] 조사대상자 정의

6) 부정불법

나와 가족을 위한 부정·불법 30.5% 매우 동의하지 않아

나와 가족의 이익을 위해 부정·불법적 방법을 사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125명(30.5%)의 청소년 유권자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각각 102명(24.9%), 60명(14.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약간 동의한다 37명(9.0%), 동의한다 14명(3.4%), 매우 동의한다 5명(1.2%), 보통 67명(16.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조사대상자 부정·불법

IV. 함의점

이번 연구는 국회의원 투표에 처음 참여한 만 18세 청소년들의 시민역량 평가, 정치의식과 성향, 참여와 비판능력 등의 다양한 변수들을 집중조명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 신유권자는 자신이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강한 사회적 개혁을 요구하는 세대다. 기성정치세력으로 대표되는 정당, 정치인, 국회를 불신하는 정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당을 불신하는 정도가 강해 선호하는 정당은 없고 무정당층의 비중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과 혐오를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사회변화를 기대하는 세대이다. 청원 등의 활동이 매우 높고 청원을 통한 효능감 또한 매우 높다. 사회적 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깨어 있으며, 참여와 책임, 사회적 연대의식, 법 준수, 비판적 대안, 사회적 관용 및 포용 등 시민적 역량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투표결정 시 부모의 영향이 보이고 있어 정치적 주관이나 독립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인터넷과 사회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정보를 획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선거 참여의 의지와 투표 행위에 있어서 기존 유권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선거연령 개혁을 통해 새로 선거에 참여한 만 18

세 유권자들의 민주적 시민역량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한 시도였다. 현재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만 16세 선거 연령조정 등의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연구기관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http://scips.se/kor/>
한국청소년재단 <http://www.dreamyouth.or.kr/>

관련 문의 : 김나리 연구원(kimnari2014@gmail.com)

